반야심경, 알기 쉽게 도표로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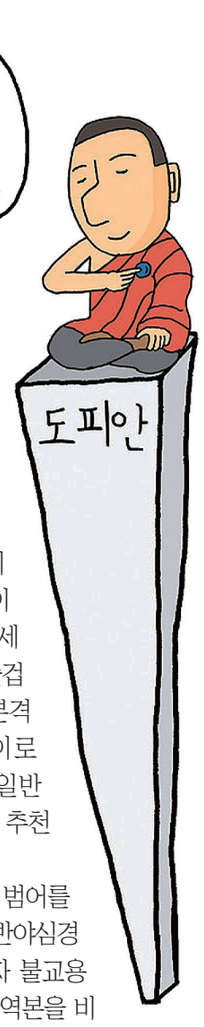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
글 김명우, 그림 배종훈
민족사/ 1만8500원

260자로 空사상 알려주는 반야심경
불교용어, 범어·한역본 비교 풀이
'유식무경'적 해석, 유식학 공부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반야심경〉은 '위대하고 완전한 지혜(般若)를 바탕으로 중생을 고통의 세계(此岸)에서 깨달음의 세계(彼岸)로 건너게(度) 하는 반야경의 핵심(心)을 담은 경전(經)'이라는 뜻이다. 반야바라밀다(반야경)의 심장이 되는 핵심을 추린 경전으로 600권 분량의 경전을 260자로 추린 것이다.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가운데 가장 간결해 한국 불자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오온(五蘊)이 모두 공하다'를 깨닫고 사리불에게 말해주는 형식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6바라밀, 즉,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를 실천하고 공을 체득했다. 법회 때마다 술술 독경하는 〈반야심경〉이지만 내용과 그 뜻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은 〈반야심경〉 입문자에게 꼭 맞는 해설서다. 이 책은 도서출판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8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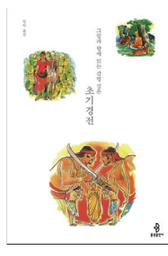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의 저자 허암 김명우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과 동아대학 대학원에서 유식사상을 전공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범어로 반야심경을 해설하다〉 〈왕초보 반야심경 박사 되다〉 〈유식으로 읽는 반야심경(唯識でよむ般若心經)〉 총 4종류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출판했다.

수십 년 동안 반야심경에 대한 해석을 깊이 있게 해온 저자는 이 책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을 통해 불교 초보자들이 누구나 편하게 읽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단순히 반야심경 그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불교의 기본 용어와 사상 또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책의 특장점이다. 심오한 공의 세계를 편안하고 즐겁게 이끌어주는 본격 반야심경 길잡이로 불교 초심자나 일반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의 강점은 범어를 한자로 번역한 〈반야심경(현장 역)〉의 한자 불교용어를 범어본과 한역본을 비교해 풀이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범어본과 한역본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본 문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본, 한역본(현장 역), 에드워드 콘즈(E·Conze)의 영역본을 비교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오직(唯) 마음(識)만이 있을 뿐이고 바깥의 대상은 없다(無境)'는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유식학 입장에서 해석했다. 언뜻 보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식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공사상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마음(전5식, 제6 의식, 제7 말나식, 제8 아뢰야식)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유식에서도 〈반야심경〉의 공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지향점은 같다는 것이다. 유식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중간중간 유식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첨가해 이해를 돕는다.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부처님 말씀들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
일아 스님 번역
불광출판사
2만2000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종교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고 새겨야 할 만한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불교 경전 가운데에도 '고전'의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 등의 초기경전이다. 종교적 가르침보다는 마음공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도 있는 이 경전들은 실제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불교 경전으로 꼽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기경전은 그 양이 방대해 이를 읽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아닌 단점이 존재한다. 부처님이 제자를 위해 설법한 가르침도 들어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은 일아 스님이 초기경전 가운데 현재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만 가려뽑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불교경전' 〈담마빠다〉에서 188개의 게송,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 〈숫따니빠따〉에서 88개의 게송, 그리고 크고 작은 초기경전을 모아놓은 4부 니까야와 〈테라가타〉 가운데에서는 24개의 경전 내용을 뽑았다. 그래서 방대한 초기경전을 모두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핵심만은 알 수 있다.



일아 스님은 초기경전 번역서와 연구서를 통해 대중에게 초기경전의 면모를 정확히 알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이 책은 일아 스님이 머리말에 "순수하고 맑은 게송들을 더 빛나게 할 도우미는 무엇일까를 고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싣는 것이었다"고 밝힌대로 경전의 구절과 함께 할 사진과 그림을 선택·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더불어 경전 내용과 사진만으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은 부분에는 스님 나름의 단상을 덧붙여 경전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사색하는 기회를 줬다.

신중일 기자

김홍도 진면목, 선종화에도 있다



김홍도 새로움
정병모 지음
다할미디어
4만2000원

김홍도의 그림 '염불서승'에 대해 정병모 한국민화학교 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김홍도 새로움〉에서 이 같이 묘사한다.

"문득 깨달음의 순간, 뒷모습으로 표현한 것부터 범상치 않다. 사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앞모습 대신 좀 더 솔직한 뒷모습을 선택했다. 달마대사상처럼 뒷모습을 그린 상은 더러 있지만, 목덜미에서 깨달음의 절정을 잡아낸 것은 김홍도의 날카로운 관찰력이다."

화가 김홍도(1745~1806?)에 대해 우리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조선시대 궁중 도화서에서 과감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내보인 천재 이단아로 알고 있다. 실제 김홍도는 전통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에 맞는 제재를 창안하고 새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다. 그가 보여준 창의성은 당시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조선회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는 조선 후기 민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김홍도를 있게 한 것은 풍속화다. 김홍도는 극적인 스토리텔링과 서정적인 휴머니즘으로 한국 풍속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하찮게 여겼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담긴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 보였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그가 중년 이후에는 내적으로 심화한 작품세계를 보인다. 이 같이 화제(畫題)가 변한 이유를 정병모 교장은 김홍도의 생애에서 찾는다. 승승장구하던 김홍도는 정조 어진 모사의 포상으로 임명된 연풍현감에서 파직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의금부까지 압송됐지만, 정조에 의해 원행을묘 행사에 동원되며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역사상 가장 스펙터클한 〈화성원행도〉 제작에 참여했다. 이후에 김홍도는 재야에서 그림을 그렸고, 이 당시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내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교 선종화(禪宗畵)다.


김홍도의 '남해관음',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앞서 밝힌 '염불서승'과 더불어 정병모 교장이 꼽는 김홍도의 선종화 명작은 '남해관음'이다. 푸른 바다 위에 광배를 두르고 화관을 관음보살 뒤로 선재동자는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정병을 들고 서 있다. 일반적으로 선재동자가 관음보살 앞에 엎드려 도를 구하지만, 김홍도는 진짜 수줍은 아이의 모습으로 선재동자를 친근하게 묘사했다. 관음보살의 호상도 엄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김홍도의 '남해관음'에 대해 정병모 관장은 저서에서 이 같이 평한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사항은 풍부하게 사용한 선의 운율이다. 파도 위로 솟아오른 남해관음의 경우 마치 물이 끊는 듯한 파도가 그대로 옷으로 바뀌었다. '파도의 옷'이다. 〈중략〉 **이 작품에서는 종교적 권위가 굴레로 작용하지 않고 예술적 영혼이 자유롭게 춤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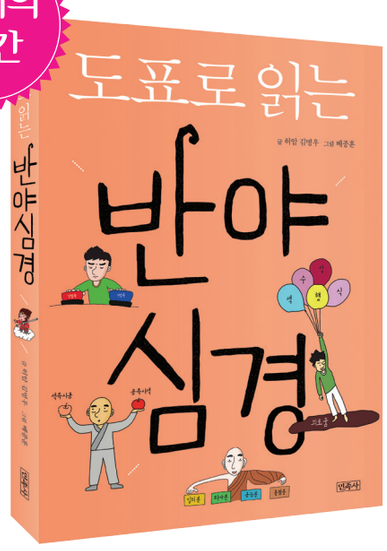
이외에도 김홍도는 '혜능삼매', '노승염불' 등의 선종화를 그렸다. '노승염불'의 제문에 '부처님 말씀을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외우고 또 외운다(口誦恒河沙復沙)'라고 쓸 정도로 김홍도는 만년에 불교에 심취했다. 정병모 교장은 김홍도의 선종화에 대해 혁신이자 새로움이라고 했다. 초반에는 남종화의 간결하고 맑은 화풍이었지만 종교적 체험이 이뤄진 이후에는 종교적 깊이와 정신까지 갖춰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동일시한 세계를 선의 화폭에 담았기에 김홍도의 선종화는 위대할 수 있었다.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